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26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286)	봉헌 (212)	성체 (158)	파견 (283)
---------	----------	----------	----------	----------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교황 프란치스코

거룩하신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평생토록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생활하시며 더 없는 겸손으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고 한 순간도 악마에게 결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친절과 인내로 저희가 겪는 어려움들을 하느님 앞에 중개해 주셨고 저희 삶의 매듭들을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며, 저희가 어머니 곁에 성실히 머무는 한 저희를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지내게 해 주십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자 저희의 어머니이신 분, 저희 삶의 매듭들을 풀어주시는 거룩하신 어머니께 청하오니 자애로운 마음으로 ooo(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이름)를 받아 주시어 악마의 공격으로 인한 매듭들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
나아가 어머니께서 받으신 은총과 어머니의 중개와 모범을 통하여 저희 또한 모든 악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하느님과 일치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은 온갖 매듭들을 풀어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결코 죄악과 잘못을 저지르는 일 없이 언제나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주님 안에 두게 해 주시며, 형제자매들을 통하여 주님께 봉사하게 해 주소서. 아멘.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7/8	이 그레이스	이바오로/김유스티나	박다니엘/황스테파노
7/15	이 마틸다	이요한/김헬레나	박다니엘/황스테파노
7/22	이 그레이스	이바오로/김유스티나	박다니엘/황스테파노
7/29	이 마틸다	이요한/김헬레나	박다니엘/황스테파노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25	\$	\$35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6/30	유 요한/ 유 마리아	8/4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7/7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8/11	김 마론/ 김 헬레나
7/14	홍 마르코/ 홍 아녜스	8/18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7/21	김 요아킴/ 고 안나	8/25	황 가롤로/
7/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9/1	손 아놀드/ 손 쟈마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 동 체 소 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7월 5일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오후 7시

다음 임원회의는 7월 8일 오후 7시에 있겠습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목요일 오후 8시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친교실 에서 모임

로마서로 공부를 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성경공부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 주일 미사 후)

오늘 미사 후 친교실 에서 소 공동체 모임이 있겠습니다.

남가주 성령 쇄신 대회 참가 신청 8월 25,26일

이번 대회의 참가 비용 절반(50%)을 성당에서 지원합니다.

호텔 예약 등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신청: 구역장님, 재무부장님**

이요셉 형제님 연도(1주년)

우리 공동체의 가족 이셨던 이요셉 형제님의 1주년 연도 기도를

7월 3일(화) 저녁 7시에 데레사 자매님 댁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분이 참석하시어 고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508 18th st. #105 tel:661-204-2699

말씀의 이삭

교황님과 아버지

-정진민 세례자 요한 | 前 MBC 교우회장-

먼저 미천한 저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전례력을 살펴보니, 7월 첫째 주일이 교황 주일이군요. 저는 ‘교황님’들의 인자한 모습을 떠올리면, 바로 제 아버지의 ‘함박웃음’이 덩달아 떠오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 초기였던 1984년 설 연휴 때, 아버지는 거나하게 술에 취해 들어오시면서 “교황님이 올해 우리나라에 오신다네~!” 하시면서 ‘함박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까지 아버지는 교회나 절에 가신 적이 한번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좀 의외이긴 했지만 반갑고 따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교황님을 존경하고 계셨으며,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험하게 야단치거나 때리신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일입니다. 점심 식사를 꼭 집에 돌아와서 하신 후 한숨 주무시고 난 후, 다시 일터로 나가시기까지 1시간 남짓은, 아버지의 자전거를 몰래 타보는 신나는 시간이었는데 그 날은 친구 집에 가서 놀다가 깜빡 1시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혈레벌떡 돌아오는 동네 길 사거리에서 아버지는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고 계셨습니다. 화가 많이 나서 저를 한 대 때리려던 아버지의 손은 저 아래 제 종아리로 내려가서 하나도 아프지 않게 살짝 때리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짜릿했습니다. 저를 얼마나 아까워하시는지를 절감한 순간이었지요. 세상을 떠나신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의 아버지 손길

을 떠올리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손에 굳은살이 박이신 아버지의 사랑은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신비한 사랑임을 지금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하느님이 한없이 너그럽고, 저를 믿어주시고, 제 잘못도 쉽게 용서해주시고, 저를 아깝고 소중한 자식으로 여기시는 분이라는 든든한 믿음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수록 저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랑의 배고픔’에 시달리는지를 절감합니다. 그 고통은 우선 부모가 적절히 채워주지 못해서 생긴 ‘사랑의 배고픔’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젓먹이 때까지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두 번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이상의 사랑을 항상 목말라합니다. 그런 ‘사랑의 목마름’은 오직 하느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 이기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을 저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 서울 주보에서 -

교리상식 미사주는 아무 술이나 괜찮나요?

미사주는 아무 술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주로 사용하는 포도주는 첨가물 없이 자연 발효된 포도주여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구할 수가 없을 때)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다른 술로도 가능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제가 알코올을 섭취할 수 없을 때는 포도즙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포도주 중에도 ‘붉은 포도주’여야만 하나 하는 의문도 생기겠지만, 붉은 포도주를 사용하면 성작 수건에 붉은 흔적이 남아 세탁이 쉽지 않아서, 사목적인 편의에 따라 백포도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